정신문화연구 2004 겨울호 제27권 제4호(통권 97호) pp. 97~139.

企劃論文

# 1948~49년 김구 평화통일론의 내면과 외연

도 진 순*

Ⅰ. 머리말
Ⅱ. 유엔 인식
Ⅲ. 미소와 제삼세계 인식
Ⅳ. 자주평화통일의 원칙
Ⅴ. 남북 인식과 통일방안
Ⅵ. 맺음말

## Ⅰ. 머리말

남북협상에 의한 백범 김구의 평화통일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왔다. 김구의 평화통일론이 좌경 또는 용공적이라는 사상적 의혹은 당대부터 시비된 바 있었고,[1] 정반대로 최근에는 김구가 1948년 남북연석회의 이후 이승만 정권 참여로 노선을 전환하였다는 주장도 있었다.[2] 이러한 양극단의 평가는 그 자체가 분단 한국현대사의 냉전적 지평에 구애된 사유의 조급함과 협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현대사 전공.

1) 대표적인 것으로는 백범을 암살한 안두희 명의의 『弒逆의 苦悶』(학예사, 1955)이다. 그런데 이 책은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김창룡 등 특무대에서 조작한 위서(僞書)로, 안두희 배후 이승만 최측근들의 백범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도진순, 「白凡 金九 弒害 事件과 관련된 安斗熙 證言에 대한 分析」, 『성곡논총』, 27집 4권(1996) 참고.

2) 근래 한 연구자는 김구가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서 돌아온 후 이승만을 방문하여 측근들의 등용을 부탁하였다는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김구가 원래의 반공노선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나남, 1996), 331~332 쪽.

이와는 달리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김구의 평화통일론이 거의 조건 없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의 평면적 사유라 할 수 있다. 전쟁과 평화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와 같이 서로 내밀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잘못된 평화가 전쟁을 초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때로는 성전(聖戰)이나 해방전쟁이 식민 지배나 종속적 굴욕의 평화를 청산하기도 하였다.

냉전적 평가의 조급함이나 협애함, 또는 탈냉적이란 명목의 평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의 평화통일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그것이 비판적이든 긍정적이든-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김구의 평화통일론에 대한 역사적 사실(fact)이 풍부하게 발굴·소개되어야 한다. 그간 김구의 독립운동이나 반탁운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였지만, 그의 민족주의에서 최종 귀결점이자 그가 암살된 근본 원인인 평화통일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홀히 취급하는 형편이다. 특히 남북연석회의와 남북 두 정권 수립 이후부터 그가 암살되기까지 만년(晩年) 김구의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음, 김구의 평화통일론을 오늘날 의미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김구의 평화통일론은 국제 협조와 민족 주체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의 구체적 상관관계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김구는 당시 통일과 관련하여 국제정세, 즉 유엔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미국과 소련, 중국과 제삼세계, 나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나아가 민족 내부, 즉 남북 두 정부와 서로 다른 체제, 또는 좌익과 우익의 갈등과 화해에 대해서 그의 평화통일론은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규명해야 김구의 평화통일론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진단하고, 발전적 계승를 위한 착지점(着地点)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1948년 남북 두 정부 수립 이후부터 그가 암살되기 직전까지 백범 김구의 만년(晩年) 평화통일운동을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 통일방안이나 정강 정책에 치중하는 추상적인 접근보다는 평화통일론의 내면과 외연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가급적 구체적 육성(肉聲)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구가 남긴 유고(遺稿)를

포함하여 그간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몇 가지 자료들을 소개·활용하였다.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구의 평화통일론에 대한 종합적이며 다각적인 분석과 논평은 다음의 과제로 남겨 두지 않을 수 없다.

## II. 유엔 인식

### 1. 유엔의 두 결의

1947년 11월 14일 유엔 112차 총회에서는 한국 문제에 대해 "유엔 감시하의 전국 총선거"를 결의하였다.[3] 그러나 소련 및 북한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이하 유엔 한위)의 입경을 거부하자 "유엔 감시하 전국 총선거"는 불가능해졌다. 결국 1948년 2월 26일 유엔은 소총회에서 한반도에서 "가능지역 선거"를 주장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통과시켜[4] 5월 10일 남한만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의 수순에 대한 김구의 입장은 요약하면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유엔 감시하 전국 총선거"를 지지하지만,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결의된 "가능지역 선거"는 반대하는, 양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가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협상을 추진한 것도 "전국 총선거"를 지지하는 유엔 한위의 일부 인사와 연계하여 시작한 것이었다.[5] 그러나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지역 선거"가 결의되자 이에 동조한 유엔 한위의 인도·중국·필리핀 대표 등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였다.[6]

---

3)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 112차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결의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는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7, VI, pp. 857~859, 번역본은 송남헌, 『해방3년사』 II(까치, 1985), 508~509쪽,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5권(국사편찬위원회, 1973), 699~700쪽 참고.

4) 유엔 소총회의 결의문(번역본)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1948. 2. 28 참고.

5)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이승만·김구시대의 정치사』(서울대 출판부, 1997), 205쪽 참고.

6) 김구, 「안도산선생 애도문(1948. 3. 10)」, 엄항섭 편, 『김구주석 최근 언론집』(삼일출판사, 1948),

유엔 한위 대표들에 대한 김구의 비판이 더욱 격렬하게 된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남한 단선을 지지하지 않다가 후에 입장을 전환하여 한국인을 배신·기만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보시오! 유엔위원단도 저들이 한국인도 그렇게 우둔하지는 않는 점에 특별 유의하였음인지 혹은 수단과 기술이 고명함인지, 우리를 교묘하게 유도하여 그 기만을 호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7]

## 2. 유엔 외교

1948년 5월 남한단선이 진행되고 난 이후 김구의 유엔에 대한 입장은 유엔 한위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유엔과 유엔 총회에 전국 총선을 다시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 이른바 '유엔 외교'로 표출되었다. 김구·김규식의 '유엔 외교'는 1948년 6월 10일 한국독립당(이하 '한독당')과 민족자주연맹의 제4차 연석회의에서 새로운 통일운동기구를 발의하는 자리에서 제기되었다.[8] 그 결과 7월 21일 통일독립촉진회(이하 '통촉')가 결성되었지만,[9] 김규식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통촉의 유엔 외교는 한 동안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엔 총회가 임박해 오자 통촉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연기할 수 없어, 9월 5일 통촉 상임위원회는 설의식·황진남·장자일·엄항섭·배성룡·신기언 등으로 '외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사무총장 리(Tregve Lie)에게 보내는 서신을 작성하였다. 서신은 "가능지역 선거"과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유엔의 승인 반대, 1947년 11월 14일 유엔 결의에 의한 전국 총선의 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10]

1948년 9월 27일 유엔 한위를 통해 위의 서신을 유엔 본부로 발송하고 난 이틀

---

18~19쪽

7) 김구, 「신민일보 사장과 회담기: 혁명운동 재출발의 신결심(1948. 3. 21)」, 엄항섭 편, 위의 책, 92쪽; 『백범김구전집』 8권(대한매일신보사, 1999), 650쪽.

8)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1948. 6. 12.

9) "G-2 Weekly Summary", no. 149(1948. 7. 23).

10) 영문 편지와 초역본은 도진순, 앞의 책(1997), 396-399쪽의 첨부 [자료 15-1, 2]; "G-2 Weekly Summary", no. 157(1948. 9. 17); "G-2 Weekly Summary", no. 161(1948. 10. 15); 『새한민보』 1948년 11월 상순호; 『자유신문』 1948. 9. 24; 9. 27; 9. 28 참고.

뒤(29일), 김구는 양김 공동 서한과는 별도로 한독당 주석 명의로 「유엔 총회에 대한 메세지」를 유엔 한위를 통해 제출하였다.

① 진정한 한인 대표에게 유엔 총회에서 발언 기회를 부여할 것,
② 미소 양군은 즉시 철퇴하고 그 진공 기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치안의 책임을 질 것,
③ 남북지도자회의를 소집하야 남북을 통한 통일적 임시정부 수립 방안을 작성하고,
④ 유엔 감시 하에 절대 자유분위기를 조성하여,
⑤ 남북에서 새로운 총선거를 실시할 것.[11]

이 중에서 ① ④ ⑤는 양김 공동 서신에서 이미 주장한 것을 반복한 것이지만, ②와 ③은 김구의 메세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즉 김구는 김규식과 합의할 수 있는 범위의 요구 사항을 공동 서신으로, 그 이상의 별개 요구를 다시 개별적으로 제출하였다.

미군 당국은 양김의 공동서신과 유엔 외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12] 대한민국 정부의 요인들도 양김의 유엔 외교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이승만의 유감 표명에 이어, 장택상 외무부 장관은 '사(私) 외교 절대 불허, 단호히 단속을 사직(司直)에 요청할 것'이라 경고하였고, 정부 대변인은 두 번에 걸쳐 정부의 공식 대표만이 유엔과 교섭할 수 있다고 공표하였다.[13]

1948년 중반 김구의 유엔 외교와 관련하여 대단히 논쟁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과 김구의 관련 그 자체도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이지만,[14] 한 프랑스 특파원은 흥미롭게도 김구가 여순사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 중립국들의 입장에 일정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구는 찾아간 Prou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여순) 사건은 미국과 러시

11) 『자유신문』 1948. 9. 30.
12) "G-2 Weekly Summary", no. 161(1948. 10. 15).
13) 『자유신문』 1948. 10. 7; 10. 9; "G-2 Weekly Summary", no. 161(1948. 10. 15).
14) 김구의 여순사건 관련에 대한 공방은 도진순, 앞의 책(1997), 321~326쪽 참고.

> 아의 입장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유엔의 중립적 국가의 입장에는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Prou에 따르면 이러한 언급은 김구가 이승만 정부가 확고해지기 이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유엔이 이승만 정부를 승인하지 않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5)

김구가 주도한 1948년 후반기 통촉의 유엔 외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해 2월 26일 유엔 소총회의 결과로 실시된 남한 선거와 이로 인해 수립된 정부를 그해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하지 않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유엔의 한국 정부 승인을 적극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한다는 것은 당시의 국제정세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 3. 유엔한국위원단

1948년 12월의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면서도, 다시 유엔한국위원단을 파견하며 미소 양군철퇴를 감시하며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1949년 1월 김구는 유엔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공동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하게 읽어보면 1년전 유엔 한위를 맞이할 때와 같은 전면적인 환영과 기대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한번 실패한 유엔과 유엔 한위가 과연 무엇을 새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가 도저하였다. 또한 당시 유엔이 국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실패로 귄위를 잃어버린 것으로 진단하였다.

> UN이 伯林 問題도, 이스라엘 문제도, 인도네시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문제에서 위신이 추락된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문제에 있어서 UN은 많은 위신을 잃어가면서 행한 그 가능한 지역의 선거만이라도 위신을 보존하려고 이로써 생긴 결과를 합리·합법화하였다.16)

---

15) Allan Haden, "Leon Prou's Impression of Korean Conditions(1948. 10. 26)", 『백범김구전집』9권, 878쪽. 인용문 중 ( ) 안의 내용은 필자가 삽입한 것, 이하 동일.

16) 『서울신문』, 『자유신문』, 『독립신문』 1949. 1. 18.

1949년 김구의 유엔 한위에 대한 우려는 두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되었다. 하나는 미군 주둔을 용인하고 있는 유엔이 과연 철군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48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유엔 한위의 입경을 다시 거부하면 과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다.

> 첫째는 撤兵監視問題다. 철병감시라 함은 미소 양군 철퇴를 감시한다는 것인데 소련측의 성명에 의하면 소군은 이미 북한에서 철퇴를 완료하였다 하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UN委員團은 별로 감시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직 삼만명을 주둔시키겠다 하고 UN도 이것을 승인하고 있으니 UN委員團이 어떻게 또는 어느 때까지 철병감시공작을 완수할는지 묘연하게 보인다.
> 둘째는 南北統一問題이다. 미소 양군이 한국으로부터 깨끗이 철퇴하지 아니하는 날은 南北統一은 바라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전번과 같이 위원단의 입경을 거절하여도 통일공작은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때에 UN委員團의 南北統一工作은 또 추진하기 곤난할 것이다.[17]

따라서 이즈음에 오면 김구는 유엔을 외교상으로 환영하고 응대하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문제의 핵심은 미소 양군의 철수와 남북의 통일인데, 전자는 미소가, 후자는 남북이 실질적인 변수라는 것이다. 결국 유엔의 활동은 이러한 양대 변수를 거중 조정하는 보족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이 南北統一도 UN委員團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는 兩軍이 철퇴하는 때에 비로소 용이하게 해결될 것이다. 양군이 철퇴하더라도 北韓의 韓人이 自主的 精神下에서 손을 맞잡고 共同奮鬪하기만 하면 成功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韓國問題는 결국 韓國사람의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18]

---

17) 김구, 「第六屆 第五次中央執行委員會(臨時)에 際하야 同志諸位께 告함(1949. 1. 16)」, 『백범김구전집』 8권, 701쪽
18) 위의 글, 701~702쪽.

유엔은 먼저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미소의 협조를 촉진시키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미소간의 타협이 없이 남북의 통일이 실현되기는 곤란한 것이다.[19]

## III. 미소와 제삼세계 인식

### 1. 체제 인식과 대응 방식

1949년 벽두부터 김구는 유엔과 유엔 한위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남북 협상의 성공을 낙관하고 있었다.

> 或者는 南北協商을 主張하는 동지들을 지목하야 南北協商派라고 하면서 죄인 같이 간주하는 듯 하나 그 자신이 南北協商派될 것이 不遠하였다는 것을 나는 말하여 둔다. 이것이 마치 兩軍 撤退를 주장한다고 우리를 非國民같이 간주하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서 兩軍 撤退를 國際的으로 呼訴한 것과 같을 것이다.[20]

김구가 이러한 낙관적 정세관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유엔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 변수인 미소 양군이 철수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김구는 선지자(先知者)가 되었으며, 양군 철수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를 수용하듯, 남북협상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다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미소 양군 철수는 김구가 남북협상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여기서 미국과 소련에 대한 김구의 인식을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는 사회체제로서는 소련과 미국에 다같이 비판적이었다. 소련에 대해서는 공산독

---

19) 『자유신문』, 『경향신문』, 『조선중앙일보』 1949. 6. 1; 도진순, 앞의 책(1997), [자료 18](403쪽) 참고.

20) 김구, 「第六屆 第五次中央執行委員會(臨時)에 際하야 同志諸位께 告함(1949. 1. 16)」, 『백범김구전집』 8권, 703쪽

재를, 미국에 대해서는 자본 독점을 주로 비판하였다. 이것은 그가 구상하는 통일 국가의 체제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우리는 그의 1949년 「신년사」를 볼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소련식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하여도 공산독재정권을 세우는 것은 싫다. 소련이 아무리 우리의 우방이오 소련인과 친구 되기를 아무리 원할지라도 소련과 소련 사람을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위하기는 싫다. 이것은 유고슬라비아 민족의 용감한 행동으로써 표현된 것이다.
>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하여도 독점자본주의의 발호로 인하야 무산자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낙후한 국가를 자기의 상품시장화하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 우리는 진실로 국제적으로 평등한 입장에서 새로 친선을 촉진하면서 우리가 우리 삼천만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자주독립의 조국을 가지기만 원하는 것이다. 더구나 반쪽의 조국만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을 원하는 것이다.[21]

김구의 이러한 체제 인식은 균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인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남한의 우익이나 중간파 중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었다. 김구와 한독당은 이것을 혁명의 단계로는 "반봉건 반제국주의적 부르조아 민주주의 민족혁명"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런데 김구와 한독당은 미소의 사회체제에 대해서 모두 비판적이었지만, 미소 양대 세력의 제약 아래 있는 당시의 현실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민족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소반미를 배격하였다.

> 본당(한독당)은 앞으로도 반봉건적 반제국주의적인 부르조아 민주주의 민족혁명의 큰 기치 하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평화적 방법으로써 모든 민족역량을 통일 단결시킬 결심을 갖고 나갈 것이다.....오늘날 아직도 미소 양대 세력의 제약성이 해소되지 못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소반미적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22]

---

21) 김구, 「신년사」, 『조선일보』 1949. 1. 1; 『자유신문』 1949. 1. 1.

오히려 김구는 국제적으로 개방적이며 호혜평등한 관점에서 미소 어느 한편으로 편향되지 않는 조건에서 친미친소 외교를 주장하였다.

> 미소 어느 편으로든지 편향하는 날이면 외국의 간섭은 더욱 조장하고 외군 철퇴를 더욱 지연시키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미소 양국의 협조 없이 한국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금번의 UN 업적이 웅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자결 원칙을 經으로 하고 공명정대의 친미친소 외교를 緯로 하여 평화적 국제협조 노선 위에서 우리 문제의 해결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3]

김구는 사회체제 인식에서 균등을 강조하여 사회민주주의로 기운 듯 하지만, 미소 등거리 외교를 주장하였고, 굳이 따진다면 소련보다 역시 미국 측을 선호하였다. 이것은 미소 양군의 철군 문제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 그는 소련군이 먼저 철군를 제의하였지만 그다지 미더워하지 않았다.

> 問 : 蘇聯軍은 北韓서 정말 撤退할 것 갓치 보심닛까.
> 答 : 미더지질 안소. 南쪽의 美國軍隊를 뚜쳐내 떠나 보내려니까, 그 수작인 것 갓소. 나는 원 몬저 나가는 놈이 더 수상하고, 더 안 떠나더라니까.. [24]

반면 미군에 대해서는 미군 철수 이후에도 독립국가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고 내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미군사협정을 채결하는데 동의하였다.

> 문 : 한미군사협정에 대한 貴見 여하?
> 답 : 독립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內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의 두 조건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25]

---

22) 『조선일보』 1949. 5. 10.
23) 「신민일보 사장과 회담기: 혁명운동 재출발의 신결심(1948. 3. 21)」, 『백범김구전집』 8 권, 655 쪽
24) 「김구선생회견기」, 『三千里』 1948. 9월호(7면).
25) 『서울신문』 1949. 4. 28; 『조선일보』 1949. 4. 29.

## 2. 전쟁과 평화

김구가 미소와의 친선을 강조하였다는 것은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미소 양군이 철수해도 한반도 주변에서 미소에 의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당시 김구는 미소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었던가. 1948년 연석회의 이전 미소 관계는 이미 냉전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김구는 미소 관계가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 그들은(단정론자들) 무력으로써 북한까지 통일하기를 희망하는 까닭에 전쟁이 폭발하기만 고대하고 있지만 전쟁은 아직 나지 아니할 것이다. 미소가 다 전쟁을 할 수 없거니와 설령 미국이 開戰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現時 형세로 보아서는 戰友로 나설 능력 있는 盟國이 없는 것이다. 일보를 退하여 전쟁이 된다 하더라도....전쟁의 결과는 소련이 승리하면 한국은 소련의 연방이 될 것이요, 미국이 승리하면 미국의 부속국이나 혹 일본의 전리품이 될는지도 모른다.[26]

이 구절은 김구의 미소 및 전쟁 인식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언급이다. 여기서 김구는 미소간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미소의 "연방" 또는 "부속국"이 되거나, 심지어 전쟁에 공헌한 일본에 다시 주어질 지 모른다고 예견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예측도 흥미롭지만, 김구의 기본 인식에서 핵심은 미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세를 미소간의 "평화"를 중심개념으로 독해하고 있었다. 당시 미소 냉전 하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 대립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김구는 이것들도 모두 "평화"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1949년 1월 16일 「한국독립당 第六屆 第五次 中央執行委員會에 際하야 同志諸位께 告함」에 다섯 가지 국제문제에 걸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

26) 김구, 「祖國 興亡의 關頭에 臨하여 南下한 以北同胞에게 寄함(1948. 3. 21)」, 『백범김구전집』 8권, 589~590쪽

同志 여러분 우리를 싸고도는 최근 國際情勢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첫째 伯林問題니 一時는 그 험악한 상태가 일촉즉발의 勢에 있어 好戰 팟쇼群들은 摩拳擦掌을 하고 손을 꼽아 전쟁발발하기만 고대하였으나 지금은 약간의 소식이 如絶如縷하게 전해 올 뿐이여 대체로는 도로혀 고요하다. 둘째는 '팔레쓰타인' 問題니 一時는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격렬히 진행하였으나 近東一帶의 龐大하고 豊富한 油田을 中心으로 한 美英蘇의 角逐戰으로부터 오는 矛盾이 이 三大强國으로 하여금 彼此 不同한 一方에 加擔케 함으로 因하야 어느 一方이나 더 挑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亞細亞會議니 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和蘭의 침략전쟁을 제지하려는 것이 目的이다. 넷째는 中國問題니 現下에 中共軍은 파죽의 세로 南京을 향하야 돌진하고 있다. 이리하여 中央政權은 도리혀 地方政權化하게 되였다. 그러나 中國人民은 無條件하고 平和만 希望한다....다섯째는 美國大統領 被選問題니 선거 당시에는 대다수가 생각하기를 강경한 反蘇政策을 취하야 戰爭까지 誘導하고 危險性을 가졌다고 추측하는 共和黨側에서 大統領이 피선되리라 하였으나 實地에는 '트르맨' 大統領이 再選되었다. 어찌 그뿐이랴. 최근에는 '애치슨'氏가 國務卿이 되였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美國 國民도 다른 나라 國民과 같이 平和를 愛好한다는 것을 事實로써 證明한 것이다. 우리는 以上의 五個問題를 通하야 一個의 共通한 點을 發見할 수 있으니 그것은 곳 '平和를 願하는 것'이다.[27]

즉 그는 베를린 봉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대립, 인도네시아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아세아회의, 중국의 국공내전,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모두 평화의 개념으로 독해하고 있다. 미국에 관계되는 것으로는 김구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트루만의 대내외 정책을 가장 진보적이며 평화적인 것으로 찬양하였으며, 대소 관계도 결국 평화로 귀착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문 : 트루만 씨의 대통령 재차 취임에 따르는 미국의 금후 대외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답 : 미국의 대소 국교를 조정하고 전 인류를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는 주동권

27) 김구, 「第六屆 第五次中央執行委員會(臨時)에 際하야 同志諸位께 告함(1949. 1. 16)」, 『백범김구전집』 8권, 701~702쪽; 『서울신문』, 『자유신문』, 『독립신문』 1949. 1. 18.

> 을 장악하였다고 본다. 미국의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전 세계의 인류는 20세기의 위대한 정치가 트루만 씨에게 집중된 감이 있다. 나는 트루만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을 가장 진보적이라고 찬양하고 싶다.28)

문 : 트·스 회담설에 대한 貴見 여하?
답 : 결국 평화롭게 귀착될 것이나 그동안 양국의 흥정에 약소국으로서의 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29)

이처럼 김구는 한반도에서 소련군이 철수하고 미군도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미소 관계를 평화적이며 낙관적으로 예상하였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미소간의 냉전은 무엇이었는가? 그에게 냉전은 전쟁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그것과 구별되는 평화의 한 범주였다.

>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소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첫째가는 상책이니, 먼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새말로 하면 아마 "냉전"이니 "신경전"이니 "선전전"이니 "화평공세"이니 하는 등등의 말이 이러한 의미로 씨여지고 있는 것 같다.30)

## 3. 중국과 제삼세계 정세 인식

김구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세계정세에서 중국과 아시아의 반침략 민족운동을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1946년 1월 16일 한독당 제6계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맞이하여 "전세계 인류가 머리를 아세아로 돌리어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그가 거론한 다섯 가지의 국제 문제 중에서 세 가지가 아시아 지역의 문제였다.31)

이것은 어느 정도 당시 세계정세에서 중국 및 제삼세계의 변화와 국제적 진출

---

28) 『조선일보』『동아일보』 1949. 1. 23.
29) 『경향신문』 1949. 2. 2.
30) 김구(遺稿), 「和平統一의 길」, 『새한민보』 3-15, 1949년 7월 중·하순호.
31) 김구, 「한국독립당 第六屆 第五次中央執行委員會에 際하야 同志諸位께 告함(1949. 1. 16)」.

이 차지하는 지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냉전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공산주의 내지 좌경화의 확대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김구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독해하였다.

먼저 그는 특히 중국에서 등장하는 마오쩌둥(毛澤東)을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반소(反蘇)적인 "유고의 티토"와 같은 맥락으로 평가하였으며, 이것은 한국의 좌익들에게도 민족적 성향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공산 중국은 미국 영국과도 선린관계를 회복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毛澤東 정권의 신정책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아세아의 티토로 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다. 여하간 美英과 타협하지 않는 정권이 目下 중국에서 長久히 존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毛澤東 신정권이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의 좌익에게도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노선이 ●頃할 수 있는 만큼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32]

> 문 : 美英은 중공이 장차 '新政'을 선포하면 승인을 시사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여하?
> 답 : 모든 국제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사실상의 정권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변치 못할 일이다.[33]

중국 문제와 아울러 김구는 아시아에서 반식민주의 민족운동의 대두를 대단히 중요하게 파악하였다. 1949년 1월 한독당은 인도네시아의 반침략 항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 정부의 제창으로 1949년 1월 20일 뉴델리에서 열리는 全亞細亞民族會議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대표의 파견을 건의하였다.

> 아시아 민족 전체의 앞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용감한 투쟁을 지원하고 역사를 전진하려는 아시아회의가 거행되는 이 때에 한국은 반드시 대표를 보내어 뉴델리 회의에 참가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 아시아민족과 더불어 공동쟁투 해

32) 『조선일보』, 『동아일보』, 1949. 1. 23. 인용문에서 ●은 해독 불능, 이하 동일
33) 『조선일보』 1949. 6. 11.

> 야된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인도네시아의 독립투쟁을 지원하는데서 우리 민족의 독립이 또한 보장될 수 있다는 경각성을 가져야 된다.[34]

이러한 김구의 제삼세계 인식을 전제해야 그의 암살 직전에 열린 한독당 전국대회 「선언문」에서 한반도 및 세계 정세를 미소 냉전보다는 반제반봉건의 민족적 차원에서 규정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유엔보다는 제삼세계 민족역량의 진출에 더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

> 동아시아 인도네시아 발칸 등지에서는 민족자결을 위한 강렬한 反帝鬪爭이 전개되고 있다. 유엔 기구는3 차까지 회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전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모순과 대립과 전쟁이 그대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을 따름이며 아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환경은 우리 조국에도 그대로 축소 반영되고 있다. 國土의 兩斷은 경제의 파탄과 同族相殘을 초래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死生의 關頭에서 방황케 하고 있으며 親日派·民族反逆者들의 발호와 封建勢力의 잔존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자유 발전을 방해하고 民族精氣를 말살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억압과 침략을 위한 어떠한 기도도 이를 抵死반대할 것이며 전세계 평화를 애호하는 인민과 더불어 영구한 세계평화의 확보를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35]

이상을 요약하면 김구의 국제정세 인식은 유엔과 유엔 위원단에 대한 기대가 감퇴하고 있었지만,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서 철퇴하고 그후 미소의 평화관계가 지속되며, 아시아 제삼세계의 민족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정세는 남북의 협상과 통일에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34) 『서울신문』 1949. 1. 12.

35) 『조선중앙일보』 1949. 6. 17; 도진순, 앞의 책(1997), 404~405쪽의 [자료 19] 한독당 전국대회 「선언문」(1949. 6. 15).

## Ⅳ. 자주평화통일의 원칙

1949년 김구는 "민족자결 원칙을 經으로 하고, 공명정대의 친미친소 외교를 緯로 하여" 평화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36] 여기서는 그가 경(經)으로 삼은 민족자결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그것의 배경이 되는 그의 민족주의론과 민족자결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1. 민족주의론

김구의 평화통일론의 기저에는 그의 민족에 대한 인식, 즉 민족주의론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과 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민족자결의 원칙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그의 민족주의론의 내부는 혈연을 한축으로 하고, 역사와 문화를 다른 한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소원」에서 그는 민족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피와 역사"라고 규정하였다.

> 나는 공자·석가·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대,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 됨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37]

먼저 그는 혈연의 동일성과 그것의 영속성을 민족의 기초로서 대단히 강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민족론에서 기초는 혈연적 '단일민족론'이라 할 수 있다.

> 철학도 변하고 정치·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거니와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일찍이 어느 민족 안에서나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정치적 이

36) 「신민일보 사장과 회담기: 혁명운동 재출발의 신결심(1948. 3. 21)」, 『백범김구전집』 8권, 655쪽
37) 김구,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돌베개, 1997), 424쪽

> 해의 충돌로 두 파 세 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어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바람 잔 뒤의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다.[38]

이처럼 그의 민족론은 혈연적 단일민족론을 기초로 하고 있었지만,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과 동일성도 대단히 강조하였다. 그의 이러한 '문화민족론'은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과도 연결되어 있다.

>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우리 국조(國祖) 단군의 이상(理想)이 이것이라고 믿는다.[39]

문화민족주의자로서 김구의 면모는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에서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를 든다면, 위의 홍익이념에 대한 자부도 그러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유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독자의 문화가 발달하였다는 구한말이래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 흔적을, 신라 화랑의 세속오계(世俗五戒)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도 흥미롭게 볼 수 있다.

> 在家盡孝 爲國盡忠 交友以信 臨戰勿退 殺生有擇 以上五誡之作 先乎儒佛 上古吾人奉若神誥 漸磨之化 歷久不替 [智仁勇 天挺之性 高尙俊美之俗 合於自然 文德武功 照耀相望] 北岡皂衣之跡 南岡花郎之風 槪可像想矣(집에 있을 때 효도를 다하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벗을 사귐에 신의로써 하며, 싸움터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에는 가려서 하라. 이상의 오계는 유교와 불교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상고시대에 조상들은 오계를 받들기를 신의 가르침처럼 했으니, 갈고 닦은 교화가 역사가 오래되어도

38) 위의 책, 424~425쪽.
39) 위의 책, 431~432쪽.

> 바뀌어지지 않았다. 북쪽나라(고구려)의 조의(고구려 초기의 벼슬)의 행적과 남쪽나라(신라)의 화랑의 교풍을 대략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40]

이러한 문화민족론은 남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도 좋은 제도를 참고하여 앞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제안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반드시 최후적인 완성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한다. 인생의 어느 부분이나 다 그러함과 같이 정치형태에 있어서도 무한한 창조적 진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반만년 이래로 여러 가지 국가형태를 경험한 나라에는 결점도 많으려니와 교묘하게 발달된 정치제도도 없지 아니할 것이다. 가까이 이조시대로 보더라도 홍문관(弘文館)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 같은 것은 국민 중에 현인(賢人)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멋있는 제도요, 과거제도와 암행어사 같은 것도 연구할 만한 제도다. 역대의 정치제도를 상고하면 반드시 쓸 만한 것도 많으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남의 나라의 좋은 것을 취하고, 내 나라의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나라에 독특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세계의 문명에 이바지하는 일이다.[41]

이처럼 김구는 혈연을 중시하는 단일민족론, 역사와 문화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문화민족론을 주창하였다. 다음, 김구의 민족주의론은 외부세계와 주체적이면서 개방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가 윤봉길 사건 이후 피신과 유랑 중에 중국의 문물들을 보면서 사대적이었던 조선의 성리학자들과, 레닌의 이론을 추종하는 당대의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한데서 잘 드러난다.

> 중국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방귀를 '향기롭다' 고 하던 옛사람들을 비웃던 그 입과 혀로 레닌의 방귀는 '달다' 하니, 청년들이여, 정신을 좀 차릴지어다. 나는 결코 정자·주자 학설의 신봉자도 아니고 맑스·레닌주의의 배척자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특성과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주의와 제도를 연구·실시

40) 『백범김구전집』, 11권, 280~281 쪽

41) 김구, 도진순 주해, 앞의 책, 430~431쪽.

하려고 머리를 쓰는 자 있는가? 없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으랴.[42]

김구의 민족주체성은 결코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외부와의 주체적인 관계를 주장하였지만, 당대의 현실은 '나라'와 '민족' 단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인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해동포(四海同胞)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되는 일이니,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43]

이러한 그의 민족론에 따르면 해방 이후 최대의 현안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이었으며, 민족내 남북 및 좌우의 분열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성쇠흥망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남는 것이다.[44]

동일한 관점에서 김구는 민족내부의 분열이 외세와 연결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민족 내부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근래 우리 동포 중에는 우리나라를 어느 이웃나라의 연방에 편입하기를 소원

42) 위의 책, 353쪽.
43) 위의 책, 425쪽.
44) 위의 책, 424~425쪽.

> 하는 자가 있다 하니, 나는 그 말을 차마 믿으려 아니하거니와 만일 진실로 그러한 자가 있다 하면, 그는 제정신을 잃은 미친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45]

>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이다.[46]

그가 민족을 강조하였다고 해서, 무원칙적이거나 복고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구의 민족주의론은 근대적인 자유민주주의론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이념을 한마디로 '자유'로 요약한 바 있고, 모든 의미의 독재에 대해 반대한다고 공언하였고, 특히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독재"에 대해 누누히 반대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 독일의 나치 독재, 소련의 맑스레닌주의 독재 등 근대 이후 세계사의 독재를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양반독재"도 일종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계급독재로 비판하였다.[47] 따라서 그의 민족주의는 다른 한편으로 언론과 사상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의 복종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는 민주주의와 연결되었다.[48] 이처럼 김구의 민족주의론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민족론, 문화와 역사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문화민족론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것이 남북 사이에는 민족단결론, 대외적으로는 주체적이며 개방적인 열린 민족주의,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연결되었다.

## 2. 종속과 자주

김구의 민족주의론에서 볼 때 분단 전후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출발점은 남북이 각각 미소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자주·자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그는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 당시 목도한 북의 종속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45) 위의 책, 424쪽.
46) 위의 책, 432쪽.
47) 위의 책, 426~427쪽.
48) 위의 책, 426~430쪽.

> 그곳(북한)은 妙하여 실제는 七人會議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양이더군. 七人會議構成에 아라사 사람이 셋이라든가, 넷이라든가, 남어지가 우리 韓人들이라드군, 그러기에 金日成이나 金科奉이나 다 맘대로 어디 하든가요. 지난번만 하여도 平壤서 내게 電氣를 꼭 보내준다고 하여노문 斷電하여 버리고, 또 水利問題같은 것도.....
> 내가 平壤을 떠나든 날 나는 金日成氏다려 「오늘 曹先生(조만식)을 다리고 가고 싶으니 갓히 가게 해주구려!」햇더니, 金日成氏는 「야! 제마음이야 얼마든지 갓치 가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어듸 제가 무슨 權限이 있어요? 駐屯軍當局의 諒解가 있어야 됩니다」하였다. 나는 「그대들의 權限이 그분인가? 그래서야 어듸 自主政權인가?」하며 弄談하엿다. 如何間 外軍만 다 나가면 우리사람끼리는 妥協 못될 일이 업슨 것을 더욱 느꼇소.[49]

북의 종속성과 아울러 김구는 남한의 단정론자들을 비판하면서 남한을 프랑스 종속하의 베트남에 비유한 적이 있다. 즉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 그들(단정론자들)은 당장에 독립이나 되는 듯이 대통령도 내고 조각도 하느라고 奔忙하지마는, 佛國 安南 總督 밑에 安南 皇帝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토록 흥이 날 것이 없는 것이다.[50]

때문에 김구는 남북이 서로 협상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성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자주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가 "통일"이라는 개념을 항상 "독립"과 결합하여 "통일독립"으로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1949년 2월 초 김구·김규식이 영도하는 통촉이 유엔 한위를 맞이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의 「5개항 원칙」 중에 1번으로 자주적 완전 독립을 상정한 것도 이러한 정세관의 반영이었다.[51] 이러한 정세 인식을 기반으로 김구는 남북이 피차 미소에 제압 당하는 처지임을 각성하여 냉정한 이성을 회복하고 민족적

---

49) 「김구선생회견기」.
50) 김구, 「조국 흥망의 關頭에 임하여 남하한 이북동포에게 寄함(1948. 3. 21)」, 『백범김구전집』 8권, 589쪽.
51) 『조선일보』 1949. 2. 15.

양심으로 돌아와 서로 단결하자고 호소하였다.

> 실상은 미소의 정책으로 조성되는 현실 위에서 彼此에 壓制 당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熱鎭靜하고 반성함으로써 냉정한 理性을 회복하여 한결같은 民族的 良心으로 精誠團結하여써 다같이 외세의 압력을 거부하고 자주통일의 길로 향하여 총진군할 수 있는 날에 비로소 이 겨레의 앞에는 통일과 자유의 서광이 비칠 것이다.[52]

## 3. 전쟁과 평화

김구는 남북이 미소의 제약에서 벗어난 뒤에도 여전히 전쟁과 평화의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국제적 차원에서 미소간의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다시 강대국의 연방이나 부속국이 된다고 비판하였다.

1948년 9월 초 김구는 미소가 전쟁으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는 곧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믿었다. 그것도 10년도 걸리지 않는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예견하였다.

> 問 : 祖國의 完全統一을 보자면 앞흐로 한10년 計算하여야 되겠음니까
> 답 : 아니, 그러케 아니 걸릴 것이요. 南은 南대로, 北은 北대로, 하여 나가다가, ●●●는 한 機會가 있을 것이니, 그때 合쳐질 것이요. 統一의 길로 바로 올케 잡아들 것이요.
> 問 : 그것은 美蘇戰爭을 이용한다는 뜻임니까.
> 답 : 아니요. 戰爭은 나지 안치요. 戰爭은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準備가 되어 있지 않아서 戰爭은 못할 것이요. 그러나 國際的으로 어떤 큰 機會가 올 것이요. 外勢의 干涉만 없다면 우리 同族끼리야 合치는 것이 그리 難事가 아닐 것이고....[53]

---

52) 김구(遺稿), 「空念佛과 現實」, 『民聲』 1949년 7월호
53) 「김구선생회견기」.

이처럼 1948년 당시 김구는 미소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소의 간섭이 없어지면 남북의 우리 동족끼리 합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미소 양군이 철수하면 남북 사이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구는 8·15 해방 직후의 혼란한 분위기에서도 별 마찰이 없었던 것 등을 예로 들면서, 남북 사이에 내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견해를 사대소심증(事大小心症)으로 일축하였다.

> 外軍이 撤退한다고 해서 內亂이 일어난다는 것은 事大小心症에서 나오는 망상인 것입니다. 8·15해방 직후야말로 가장 불순한 요소와 흥분한 군중과의 사이에 충돌이 생길 우려가 농후했었지만은 국부적인 마찰조차 없었던 것입니다.[54]

그러나 1949년에 들어와 남북간의 실제 정세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다. 연초부터 본격적인 국경충돌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49년 5월 이후 38선에서 소규모 충돌은 6월말과 7월에 들어와 연대급 전투로 발화되었다. 38선 충돌의 정점은 1949년 6-9월 네 달로 대체로 김구가 암살된 이후지만, 그 이전에도 충돌은 적지 않았다. 산술적 평균으로 보면 1949년 1-10월 매일같이 1.5건 이상의 38선 충돌이 발생했으며, 3.7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였다.[55]

따라서 1949년 중반이 되면 김구는 미소간의 충돌은 여전히 없을 것으로 보지만, 서로 적대적인 정권과 군대의 대결로 남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1949년 5월 31일 김구는 유엔 한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남북간의 대립에 대한 미소 양국의 책임과 조정을 촉구하였다.

---

54) 「신민일보 사장과 회담기: 혁명운동 재출발의 신결심(1948. 3. 21)」

55) 38선 충돌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해방과 건군』(국방부, 1968), 507쪽; 정병준, 「1949~50년 38선 충동과 북한의 한국전쟁계획」,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50주년 학술심포지엄, 『한국전쟁의 재인식: 분단을 넘어 통일로』(2000);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5』(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33쪽; 김한길, 『현대조선역사』(평양: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83), 312쪽; 허종호, 『미제의 극동침략과 조선전쟁』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83쪽.

> 미소양군의 분할점령으로 인하여 생긴 삼팔 장벽이 제거되지 않고 또 남북한의 무장세력간의 충돌이 빈발하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떠한 장애도 제거되기 곤란할 것이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부분적 교류를 추진시키기 위하여는 먼저 남북의 군사적 충돌의 위기를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도 미소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유엔의 노력이 기대되는 바이나, 한국을 분단해 놓은 미소 양국이 자기 점령지역에 각기 상반된 정권과 군대를 만들어 놓고서 그대로 나가는 것은 마치 남의 동리에 와서 싸움을 부쳐놓고 슬쩍 나가버리는 것과 같다.[56]

그러나 1949년 김구의 기본 관점은 여전히 평화였으며, 이것은 남북의 타협과 협상을 통한 통일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戰爭이냐 妥協이냐 우리는 서슴치 아니하고 妥協의 길을 取하자고 主張한다. 過去도 그러하였고 現在도 그러한 것이다. 이것이 人類의 念願이며 三千萬의 愛國心이다. 今日 三千萬의 渴望하는 바는 外國의 干涉없이 同族의 流血이 없이 오직 平和로운 民主方式에 依하야 祖國의 統一獨立을 完成하는 것이다. 祖國이 平和롭게 統一을 하지 못하면 政治的으로 獨立을 얻을 수 없고 經濟的으로 生存을 구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透徹히 認識하고 있다.....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끼리 피를 흘리겠느냐..... 그러므로 南北統一은 南北協商의 途經을 通하야만 얻을 것이다.[57]

이러한 입장은 38선 충돌이 치열해지고 그가 암살될 당시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암살된 후 발견된 유고에서도 4년 동안 공염불로 치부되던 양군 철수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남은 공염불인 통일과 독립도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 四年 동안이나 「空念佛」처럼 떠들어 오던 兩軍撤退도 마침내 실현단계에 다달았다. 이제는 南北統一, 完全獨立이란 다른 「空念佛」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꾸준하게 분투 노력하는 데서 꼭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58]

---

56) 도진순, 앞의 책(1997), 첨부 [자료 18], 404쪽 참고; 『조선중앙일보』 1949. 6. 1.
57) 김구, 「한국독립당 第六屆 第五次中央執行委員會에 際하야 同志諸位께 告함(1949. 1. 16)」.

그는 백보 양보하여 남북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더라도 평화 협상을 우선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전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고대 병서에도 先禮後兵이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곧 아모리 전쟁을 할 결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반드시 먼저 나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성의를 다 해 보았으나, 상대방의 무성의로 인하여 평화가 파괴되었다는 전쟁의 책임을 명백히 한 뒤에 무력을 발동하라는 말이다. 또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소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첫째가는 상책이니, 먼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59]

## 4. 협상과 승리

1949년 김구는 여전히 평화통일의 방법은 남북협상밖에 없으며, 그것은 또한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9년에는 남북 두 정부가 수립되는 등 1948년 남북협상 당시와는 적지 않은 정세의 변동이 있었으며, 1948년 남북연석회의는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 김구는 우선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 일부 인사들이 남북협상을 몹시 싫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제1차 남북협상에서의 굳은 맹약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파괴하였으니 이것을 보고 낙심하는 것도 비난할 수 없다.[60]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관점은 남북협상은 바른 길이며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방북 1주년을 회고하면서 발표한 글에 잘 드러나 있다.

> 회고컨대 나는 작년 4월 19일에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萬難을 무릅쓰고 38선을 넘어서 북행했었다. 그 뒤에 조국의 현실은 마침내 분립의 형태를 가지게

58) 김구(遺稿), 「空念佛과 現實」.
59) 김구(遺稿), 「和平統一의 길」.
60) 『서울신문』, 『자유신문』, 『독립신문』 1949. 1. 18.

>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국제적 제약성에 기인한데 불과한 것이며 삼천만 동포의 마음속에는 다만 하나의 조국이 있을 뿐으로서 남북동포의 통일을 갈망하는 열렬한 의욕은 시간과 함께 더욱 성장되고 있다. 제1차 협상을 실패라고 규정짓는 것은 조급한 생각이다. 국제적 압력으로서 첨예하게 대립된 상극의 세력을 정치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시킴에 필요한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일차 협상은 복잡한 정치적 교섭의 도정을 계시하는 한갓 서곡에 불과하고 종국은 아니다. 협상에서 세워진 통일의 원칙은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남북의 통일을 위한 협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분단된 현실에 대하여 누구나 만족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다. 미소 양군의 철퇴는 우리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전진하며 정의에서 우러나오는 정당한 주장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61]

여기서 김구는 ① 남북이 분단된 것은 남북회담 그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국제적 제약성에 의한 한 것이라는 점, ② 1948년의 남북연석회의는 통일 역사의 시작이며 끝이 아니라는 것, ③ 미소 양군 철수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북협상도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

1949년 김구가 당면한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의 국공회담이 결렬되고 공산군이 전 중국을 석권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남한 정부와 우익들은 남북 협상은 중국과 같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하고 우려하였다. 이에 대해 김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중국의 國共會談은 戰勝者와 戰敗者의 회담이니 자연 그렇게 된 것이다. 國府側으로서는 가장 불리한 입장과 불적당한 시기에 화평회담을 하였으므로 실패하였다. 협상에 임할 때는 彼我의 가지고 있는 유형무형의 능력과 실력을 완전 계산 위에서 피차에 타협과 양보의 한계를 획정하는 것이다. 남북협상을 한다고 해서 결코 공산당에 무조건 추종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치협상에는 노력과 열의와 氣● 및 根氣가 필요한 것이다.[62]

---

61) 『서울신문』 1949. 4. 20.

62) 『서울신문』 1949. 4. 28, 『조선일보』 1949. 4. 29.

중국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948년 남북연석회의 이후 김구가 가장 강조한 남북협상의 원칙 중에 하나가 공산당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것, 즉 회담의 형식과 내용에서 남북 일대일의 평등이라 할 수 있다. 38 선이 없어지면 남한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중국의 본격적인 공산화 이전 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될 때부터 상당히 광범위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에 대한 김구의 인식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북한 사람들이 용맹하여 38 선이 흐트러지면 文弱한 남방은 粗强한 北方에 壓倒된다 합니다"는 김동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平壤사람들은 긔운깨나 잘 쓰지요, 힘센 것 갓치요, 平壤 뿐아니라, 나는 녜전에 「仁川獄事」 시절에 이리저리 避해서 平安道 黃海道로, 여러 고을로 도라다니며 人心을 격거 보앗는데, 욱 하고 덤벼들어 힘깨나 쓰지만 西北人은 오래가질 안코, 또 標的이 그릇되어 빗나가는 일이 만해요. 智的으로 發達된 南方을 못 이길걸요.

이것은 전쟁과 군사적 측면에 대한 질문에 인문적 역량으로 대답한 일종의 동문서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구의 다음 구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 일보를 退하여 전쟁이 된다 하더라도 제일선에서 북으로 향해서 진군할 자는 이북청년일 것이요, 우리의 사살대상은 우리의 부모·친척·知舊일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소련이 승리하면 한국은 소련의 연방이 될 것이요, 미국이 승리하면 미국의 부속국이나 혹 일본의 전리품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고대하겠는가. 나는 以北人不殺以北人하라고 주장한다. 또 韓國人不殺韓國人하라고 주장한다.[63]

당시 김구는 같은 민족 사이에 이익이 없고 피해만 있는 전쟁은 있을 수 없으며, "韓國人不殺韓國人"하는 "민족적 양심"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 내전도 김구에게 전쟁에서 승리나 군사의 위력은 무기나 포탄이 아니라 민심에서 나온다

63) 김구, 「祖國 興亡의 關頭에 臨하여 南下한 以北同胞에게 寄함(1948. 3. 21)」, 『백범김구전집』 8 권, 589~590 쪽

는 믿음을 다시 확신시켜 주었다.

> 自古로 내외여론의 지지와 백성의 호응 없는 군대는 아무리 정예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싸우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의 國府軍이 무슨 까닭에 中共遊擊隊에게 마침내 패배 당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자신의 부패로 인하야 붕괴되었다고 한다. 國府의 大官과 將領들은 私利와 私權을 서로 다투기에 열중하야 국가의 기본적 역량이 되는 백성과 사병의 생활개선에는 무관심하고, 다만 폭압수단으로써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든 모양이다. 그러나 중국의 백성과 사병들은 한참 싸우다가 보니, 나중에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야, 굶주려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다.64)

그는 중국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의 패배를 민심 이반으로 해석하였으며, 무리한 반공 공작이나 빈곤이 오히려 공산당의 싹을 키우는 비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산주의는 군사력이나 포탄의 위력이나 탄압으로 없앨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이승만이 장개석과 연합으로 동아시아 반공전선을 형성할 것을 주장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 빈곤과 기아를 그대로 두고서 포탄의 위력만 가지고 공산주의를 능히 분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중국에서 큰 실패를 빚어내고 있다. 다만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 만으로서는 공산주의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릇된 공산주의 소멸공작은 도리어 공산당 침투의 온상이 되고, 무리한 박해와 착취와 기아와 황폐는 '發苗의 肥料'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65)

그리하여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은 탄압이 아니라 선정(善政)이며, 그것은 힘에 의한 현상유지가 아니라 제도의 철저한 개혁으로 가능하다고 김구는 주장하였다.

> 군사는 정치의 연장이라 한다. 강력한 군사행동은 오로지 선량한 정치의 결과

64) 김구(遺稿), 「和平統一의 길」.
65) 김구, 「小兒病과 名醫」, 『서울신문』 1949. 4. 17.

> 에서 이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량한 정치는 이 땅의 객관적 정세에 의하야 급박하게 요청되고 있는 모든 제도의 철저한 개혁의 단행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산당들이 이밥을 먹으니 이밥을 먹자는 사람은 모다 빨갱이라고 하야 덮어놓고 진부한 제도와 현상유지에만 전력하려는 태도 만으로서는 현실의 사태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66)

그는 공산주의를 이긴 구체적인 모범으로 여수교회의 손양원(孫良源) 목사를 예로 들었다. 김구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좌익의 목표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성을 무시한 잔인한 수단과 학살 등의 행위를 "小兒病的 行爲"로 규탄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전쟁과 대립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 여순사건으로 좌익에게 자식을 잃은 손양원 목사가 좌익을 포용하여 개전시킨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麗水敎會의 孫良源 목사의 사적을 듣고서 나는 그분의 종교가다운 온정과 자비심에 탄복하고 경의를 표하였다.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이다. 그는 무고한 동포들을 학살한 좌익 소아병자를 완전히 고쳐서 선량한 인간이 되게 하였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학살케 한 좌익 학생에 대하여 온정과 원호의 손을 쥐어주면서 誨諭시킴으로써 多數한 좌익 사람으로 하여금 잔인한 파괴행동을 버리고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시키게 하였다.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도 손목사와 같은 雅量과 包容性과 手腕이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통일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感情을 삼가고 理智를 발휘해야 한다.67)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구는 당분간 미소간의 큰 전쟁은 없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작은 전쟁도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설령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면적 군사전보다는 일종의 게릴라전과 같은 형태가 되기 쉬우며, 여기서는 군사력보다는 정치개혁을 통한 민심과 사회의 안정이 매우 중요한

66) 김구(遺稿), 「和平統一의 길」.
67) 김구, 「小兒病과 名醫」.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V. 남북 인식과 통일방안

### 1. 북한에 대한 입장

김구는 북이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의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후 북의 통일전선 제안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먼저, 남한 단선 직후 북한에서도 정부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차 남북지도자협의회의 개최를 준비하였으며, 1948년 6월 17일 김일성과 김두봉은 해주에서 김구·김규식과 이를 위한 4김회담을 가질 것을 편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김구는 남북회담의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기 위해 "평양에 체류 중인 홍명희를 연락위원으로 서울에 오도록 하기 바란다"고 답변하였다.[68] 이것은 김일성·김두봉의 서신에 대한 일종의 역제안으로 북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48년 6월 29일~7월 5일 해주에서 북한의 15개 단체 16명의 대표, 남한의 17개 단체 17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제2차 남북지도자협의회가 열렸다. 6월 29일 예비회의에서 김두봉이 밝힌 바와 같이 북은 김구와 김규식을 "한두 번 초청한 것이 아니"었지만,[69] 그들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근 1년 이후인 1949년 5월경부터 북측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하 '조국전선')을 결성하기 위해 다시 김구와 한독당에 접근하였다. 5월 12일 남로당을 비롯한 남한의 8개 정당·사회단체는 조국전선 결성을 제의하는 서한을 발표하였고,[70] 민족주의 정당에서도 조국전선에 대한 태도 정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김구와 한독당도 이 문제를 거듭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

68) 미군 정보 자료 등에 의해 파악된, 1948년 6-7월 4김간의 서신 교환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도진순, 앞의 책(1997), 301쪽의 [표 15] 참고.

69) 「제2차 남북지도자협의회 속기록」(미출간); 도진순, 위의 책(1997), 305쪽

70) 『조선중앙일보』 1949. 5. 12.

> 평양 방송이 전하는 소위 조국통일민주전선은 신(新) 형태의 민전(民戰)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주의 남북협상과 같은 방식의 남북협상은 아모런 의의가 없는 것이다. 남의 좌익과 북의 좌익이 협상한다는 것은 좌익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미소의 협조로써 절대 자유분위기가 조성된 위에서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서울에 회합하야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야 남북 화평통일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71)

이처럼 김구와 한독당은 1948년 7월의 제2차 남북지도자협의회나 지금 결성하려는 조국전선은 1946년 초 결성된 사실상 좌익의 계급전선이었던 "민주주의민족전선(民戰)"의 재판이라 비판하였다. 즉 좌우 또는 남북의 협상이 아니라 남의 좌익과 북의 좌익 즉 좌익간의 협상이라고 비판하였다. 한독당이 요구한 것은 "미소의 협의로서 절대자유 분위기가 조성된 뒤에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서울에서 회합하여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남북화평통일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948년 중반의 제2차 남북지도자협의회, 1949년 5월 이후 북의 조국전선 결성 시도에 대한 김구의 비판적 입장은 그가 남긴 유고(遺稿)에 가장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김구는 북의 통일전선 결성에 왜 응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대답하였다.

> 우리가 주장한 협상이나 통일은 그들이(북측) 말하는 그것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협상이나 통일이란 결코 공산당만을 위한, 또는 그들의 정권 만으로서의 통일은 아니다. 오직 평등한 입장과 자유분위기에서 彼此의 권리를 용인하면서 협상한 결과로써 얻어지는 和平만이 祖國을 위한 光榮의 和平이며, 民主的 統一이라고 하겠다.72)

그가 남북협상에서 중시한 원칙은 남북 일대일의 "평등한 입장"과 "자유 분위기"였다. 평등의 원칙에서 그는 일방에 대한 "추종"이 아닌 쌍방간의 "협상"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였고, "자유분위기"는 "민주주의"란 개념으로 연결하였다. 그는

---

71) 『동아일보』, 『자유신문』 1949. 5. 20.
72) 김구(遺稿), 「和平統一의 길」.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민주주의란 말은 자유주의와 통할 수는 있으나, 공산주의와는 판이한 것이다.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성을 부인하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자는 이러한 자유성의 확보를 절대적 조건으로 한다. 협상과 추종은 판이한 것이다. 우리가 협상을 하자는 것은 공산주의자로 하여금 현단계에 있어서 민주정치제도를 접수하고, 또한 폭력으로서 이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 보기 위한 것이다. 피차에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화평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한번 서로 만나서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러한 환경과 조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73]

## 2. 남한에 대한 입장

남한에 대한 김구의 입장은 정부측에 대한 것과 정치권 일반을 포괄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측에 대해서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자유분위기와 민주주의를 대단히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구에게 있어서 남북 두 정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한국적 전통을 존중하고 자부하였지만, 봉건적 왕정보다 근대적 민주정치를 옹호하였고, 근대적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독재체제는 반대하였다.

> 問 : 「帝王政治」와 「大統領政治」의 優劣과 그 所感을 말씀 들려주십시오.
> 答 : 萬人이 다 살라면 民主政治의 길로 나가야지요. 大統領은 民意를 가장 尊重하는 政治를 하여야 함으로 大統領政治가 낫지요. 君主政治란 結局 專制政治에 떠러지기 쉽우니까.
> 問 : 또 한가지, 王政이든 大統領政治이든 間에 萬百姓이 다 잘 살 수 잇는 「富의 均等」 社會가 아니고는 안될 터인데.
> 答 : 名辭의 如何를 不拘하고 萬民共榮의 均等社會를 實現하는 原則 우에 우리 新國家의 目標를 두어야 할 줄 암니다.

---

73) 김구(遺稿), 「和平統一의 길」.

問 : 우리나라 大統領制도 차츰 改正되어 「終身大統領」이 出現할 憂慮가 없음니까.
答 : 終身大統領은 絶對 안될 말이지요.[74]

이러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구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강조하였다. 1949년 2월 초 한독당이 유엔 한위를 환영하는 담화에서 "첫째로 언론의 자유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으며,[75] 5월 31일 김구가 유엔 한위에 나가 통일방안을 피력하면서도 남북회담과 남한 내부 두가지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① 남북의 한인들이 화평통일을 위하야 모든 가능한 방법을 자유로이 토의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大韓)民國 정부의 정책이 장차 화평통일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가상한다면 전제 조건으로 화평통일을 추진하려는 정당단체의 합법적 활동이나 언론에 대한 간섭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76]

②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남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강조는 김구의 투쟁 방법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를 준다. 즉 김구와 한독당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며, 반면 한독당의 투쟁은 민주주의적이며 합법적 수단에 의해 수행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우리의 투쟁은 항상 민주주의적 합법적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통행될 것이며, 먼저 세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언론 집회 결사의 진정한 자유가 확보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며, 언론 비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지적한다.[77]

---

74) 「김구선생회견기」.
75) 『국제신문』 1949. 2. 2.
76) 『자유신문』, 『경향신문』, 『조선중앙일보』 1949. 6. 1.
77) 『조선중앙일보』 1949. 6. 17; 도진순, 앞의 책(1997), 405쪽; [자료 19] 한독당 전국대회 「선언문」 (1949. 6. 15).

이러한 민주주의와 자유분위기를 전제로 남한 전체 차원에서 김구가 강조한 것은 민족진영의 단결이었다. 먼저 그는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남한내 우익진영의 단결을 모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나는 김규식 박사와 더불어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회담에서 돌아와서부터 우선 우익진영 자체로서의 통일된 방안을 가지고서 좌익에 대하여 협상도 하고 될 수 있으면 타협하여 남북통일을 촉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앞으로도 더욱 광범한 우익단체의 합의와 지지로써 좌익(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78)

1949년 벽두부터 김구는 다시 남북회담을 예견하면서 이를 위한 남한 민족진영의 단결을 대단히 강조하였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신년사」인데, 김구는 새해를 "과거의 성공하지 못한 단결을 실현하기로 결심하고" 아예 "단결년"으로 명명하고자 하였다.79)

물론 김구가 말한 단결은 무조건 단결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누차 강조한 자유, 민주주의, 평화통일 등의 원칙에 동의하는 단결이며, 그 구체적인 범주는 남한의 우익 민족진영의 단결이었다. 김구가 1949년 1월 13일 한독당 전당 대표자대회 개회사에서 "화평통일을 위한 혁명적 투쟁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민족진영의 단결의 긴급성"을 역설한 데에 잘 드러나 있다.

> 이 대회에는 2대 의안의 하나로써 「민족진영 대동단결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최근 북에서는 좌의 통일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함에 대하여 남의 민족진영의 단결은 긴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원칙 없는 단결은 힘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당의 이념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말살시키려는 노력과 무조건 단결은 곤란한 일이다. 오직 조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互讓의 조율으로서 타협하고서 공동노력한다는 원칙 우에서 단결의 역량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본당은 조국의 화평통일의 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지도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나 이것을 추진하는 절차로서도 먼저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78) 『자유신문』, 『경향신문』, 『조선중앙일보』 1949. 6. 1.
79) 『조선일보』, 『자유신문』 1949. 1. 1.

> 서의 이에 대한 일치한 의견과 주장이 성립되어야만 한다. 남은 곧 우를 말함이며 북은 곧 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조국의 화평을 지향하고 민주주의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려는 개인과 단체간의 더욱 긴밀한 단결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80]

이러한 단결과 관련하여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승만·김구·김규식의 이른바 "3영수 합작"이 1948년말 유엔의 대한민국정부 승인이후, 1949년 1월, 1949년 5월 등 세 차례 정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미군 철수, 국회프락치사건 등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로 실패하였고, 6월 말 김구는 암살되었다.[81]

## 3. 남북통일방안

1949년 5월 북한의 조국전선 결성 시도와 남한의 국회프락치사건을 지켜보면서 김구는 5월 31일 유엔 한위에서 나가, 유엔 한위에 요구하는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취할 조치, 미소 양국에 촉구하는 것과 아울러, 자신의 남북협상 및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발표하였다. 당시 그가 제출한 통일방안은 1948년 남북연석회의 이후 남북 두 정부의 수립 등 변화된 정세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며, 그후 김구가 암살되기 때문에 그가 남긴 마지막 체계적인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다.[82] 먼저 그는 남북의 통일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선거를 제시하였다.

> ① 1948년 5월 10일에 유엔 감시하에 실시된 가능한 지역의 선거 당시에 북

---

80) 『조선일보』 1949. 6. 15.

81) 삼영수 합작에 대해서는 도진순, 앞의 책(1997), 327~334쪽 참고. 김구 암살에 대해서는 도진순, 「白凡 金九 弑害 事件과 관련된 安斗熙 證言에 대한 分析」, 『성곡논총』, 27집 4권(1996); 도진순, 「백범 암살관련 美 발굴문서 완전분석: 핵심은 김구 쿠데타 기도설, 염동진 배후설은 근거 없다」, 『신동아』 10월호(2001), 참고.

82) 1949년 5월 31일 김구가 유엔 한위에 제출한 「의견서」는 국내 신문에 따라 누락된 부분이 서로 어긋나 전체 내용도 약간 차이가 난다(『자유신문』, 『경향신문』, 『조선중앙일보』 1949. 6. 1; 도진순, 앞의 책(1997), 402~404쪽의 첨부 [자료 18] 참고). 가장 완전한 텍스트는 영문본이다("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Secretary of State," no. 327(49. 6. 6), Enclosure 1: Kimkoo's Statement to UNCOK on May 31, Enclosure 2: Kimkoo's Statement to the Press on June 1, <NARA, RG 59, 501. BB Korea>, 『백범김구전집』 9권, 710~713쪽).

한을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백명의 대표를 유엔 감시하에 북한으로부터 선출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것.
②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전체 새로 선출하기 위하여 유엔 감시하에 남북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
③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의한 남북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

①은 당시 이승만 정부측에서 주장하던 방안이며, ②는 유엔 감시하 전국 총선거이며, ③은 1947년 11월 14일 112차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전국 총선거를 실시하되, 유엔의 감시 여부는 밝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유엔 총회의 결의에는 선거에 대한 유엔 한위의 감시도 규정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그것은 보족적인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

朝鮮을 민족적 독립국가로 재건할 것과 其後 全 점령군을 최단기일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朝鮮人 대표자의 참가 없이는 朝鮮 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朝鮮 국민 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國聯朝鮮臨時委員會(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83]

김구는 북한 지역만의 재선거(①)나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②)는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1947년 11월 14일 112차 유엔 총회 결의에 따른 전국 총선거(③)를 실시하되, 유엔 한위의 결함을 보완하여 1948년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 민간지도자 회담(a parley of civilian leaders in North and South) 또는 정당사회단체회의(a joint conference of the representative of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를 개최하여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협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기하였다. 그가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

83) 『동아일보』, 『조선일보』 1947. 11. 21.

A. 남북 민간지도자 혹은 정당단체 대표인물로써 私人 자격에 의한 남북회담(a North-South parley in their respective individual capacities) 을 개최하여 통일방안을 협의할 것(모든 곤란한 형식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남북정권의 대변인도 私人 자격으로 참가할 것).
B. 회담 지점은 서울에서 할 것.
C. 회담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방면의 합의에 의하여 발표할 것
D. 이 회담에서 통일방안에 대하여 초보적 합의가 성립되는 대로 각기 원지역에 돌아가서 정식 남북회담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
E. 유엔 韓委는 이 회담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極 협조할 것.[84]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48년 4월 평양의 남북연석회의와 몇 가지 차이 나는 것들이다. 먼저, 회담 참여의 자격을 정당·사회단체의 대표자라고 할지라도 조직의 정치적 성향에 덜 구애되는 개인(私人) 자격으로(in their respective individual capacities) 설정하였다(A). 다음, 회담의 개념도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보다는 남북 일대일의 성격이 강한 남북협상(a North-South Parley) 을 설정하였다(A). 셋째, 회담의 주체로 정부 대표와 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사회단체 대표를 함께 포괄하였다. 그는 이 방안과 관련하여 남북회담에서 정부 대표와 민간인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남북에 임이 사실상으로 존립한 권력형태는 말살하려해도 말살되지 않는 것이 현실대로의 사태이다. 그럼으로 남북의 기성 사실을 위선 인정하면서 양극단을 구심력적으로 조절하여 점진적으로 접촉의 機緣을 촉성하고 漸進步步하여 통일을 위한 협조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남북정권에 직접 가담치 않은 민간 정당 사회단체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85]

즉 당시는 남북에 상호 적대적인 정권이 이미 수립되었기 때문에 양극단을 구심력으로 조절하기 위해 정권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 회담을 우

84) 도진순, 앞의 책(1997); 403쪽 첨부 [자료 18] 참고; 『조선중앙일보』 1949. 6. 1.
85) 위의 자료.

선하고(A), 다음 남북으로 각각 돌아가 정부와 협의하여 정식 남북회담을 하자는 것이다(D). 넷째, 남북의 정부와 민간인을 포함한 민족 내부를 회담의 주체로 설정하되, 유엔과의 국제 협조 하에 진행한다는 것이다(E). 마지막으로 그간 그가 누차 주장한 바와 같이 지난번에 평양에서 회담하였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서울에서 하자는 것이었다(B). 김구의 이러한 방안은 남북 두 정부가 이미 수립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었지만, 남한 정부도, 북한 정부도, 유엔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남북 두 정부는 사실상 전쟁 준비에 들어갔으며,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신이 선호하는 정부의 의견을 우선하고 있었다.

## Ⅵ.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구의 평화통일론은 분단 초기 수립된 남북 양 정권에 대해 일정하게 모두 비판적이었다. 그가 남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과 직접 대립하였고 그 결과 암살되었지만, 그가 원하던 통일국가의 체제는 어디까지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의 통일론은 북측과도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좌우·남북에 대한 김구의 정치적 입장은 1948년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좌우·남북의 협상과 화해를 주장하는 만년 그의 평화통일론은 그의 민족주의론에서 예외적인 일탈이라기보다는 본령으로 돌아와 최종적 단계로 성숙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김구의 이러한 평화통일론을 가장 적확하게 파악한 사람은 Fitch 목사 부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중국 상해에서 1932년 윤봉길 의사 사건 이후 김구 일행 4명을 28일 동안 집에 숨겨주었으며, 해방 직후에도 김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피취 목사의 부인은 김구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으며,[86] 남북 연석회의 이후 김구·김규식의 속생각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다. 그녀에 의하면 김구는 결코 좌익이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류의 우익도 아니었다.

86) Geraldine Fitch, "The Korean Leader Nobody Knows", 「백범김구전집」 9권 847~853쪽.

김구는 빈민에게 대단한 동정심을 가진 한국적 우익이었다.

> 한국에서 우익은 단지 좌익의 반대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좌익을 반대하면, FDR과 같은 New Dealer, Norman Thomas 같은 사회주의자, 중국의 孫文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면 우익이다. 이 같은 정의에 의하면 김구는 우익이다. 그러나 김구는 빈민에 대한 대단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지주계급을 반대한다. 김구는 러시아에 대한 환상은 전혀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국에 대한 신뢰도 거의 없다. 그럴만한 이유들로는 1882년(한미수호조약), 1910년(한일합방) 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미국 또한 그에 대해 거의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구는 신실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사실이다.[87]

그녀는 다른 많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남한 신정부가 유엔에서 인정받고 국제적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에서 통일의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한 김구와 김규식의 행위를 정치적 실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김구와 같은 합작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미국인들도 많이 하였던 것이라는 그녀의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

> 과연 어느 미국인이 합작을 도모하는 한국인들(김구와 김규식)에게 공산주의라는 이름표를 붙이거나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러시아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합의한 모스크바회담에 참여하였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미소 공위와 그렇게 다른 것인가? 한국인들이 공산주의자들과 회합한 것은 중국의 장개석이 공산주의자들과 회담한 것보다 과연 더 나쁜 것인가? 우리도 유사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희생하며 (러시아와) 얄타에서 합의했던 것까지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가? 왜 한 국임시위원단의 한 사람이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였던 남북회담을 제안하였다고 해서, 그 한국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가?[88]

---

87) "Letter: Geraldine Fitch to the Managing Editor of The New Leader, M. Oak.", 『백범김구전집』 9권, 870쪽.

88) 위의 자료.

탈냉전의 오늘날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김구의 합작에 대한 이러한 열린 인식은 초보적이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간 분단 반세기 동안 우리의 협애한 지적 공간은 그러한 것을 수용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김구의 평화통일론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여야 온당할 것이다. 그것은 평화통일론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토대하고 있는 현실 인식과 관련되는 것이 많다.

김구의 평화통일론은 국제 협조와 민족 주체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국제 정세에서 주요한 변수는 유엔, 미국과 소련, 중국의 공산화와 제삼세계 등 세 가지였다. 먼저 UN에 대한 김구의 입장은 1947년 11월의 유엔 총회의 결의 즉 "한반도 전제의 총선거"를 지지하지만, 1948년 유엔 소총회의 "가능지역 선거"를 반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 두 정부 수립 이후 김구는 "가능지역 선거" 결과 탄생한 대한민국 불승인과 "전국 총선거" 실시를 위한 유엔 외교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1948년 12월 유엔 총회의 대한민국정부 승인 이후 김구는 유엔에 대해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김구가 기대한 것은 유엔보다 실질적인 국제정세였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소간의 평화였다. 먼저, 미소관계를 보면 1947년 3월 「트루만 독트린」 이후 미소 사이에는 냉전(Cold War)이 본격화되었지만, 1949년 김구는 냉전을 평화의 한 종류라고 파악하고 곧 통일의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김구가 미소 양군 철수를 확대 해석하여 한반도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낙관한 데서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군대를 철수하더라도 한반도에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며, 대리전도 치를 수도 있는 초강대국이라는 점에서, 김구의 미소관계 인식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공산 중국을 또 하나의 유고로 보는 김구의 의견은 지금 보면 문제인 것 같지만, 당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나 애치슨 국무장관도 중국의 공산화를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포용정책을 구사하였기 때문에 큰 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89] 그러나 소련의 북한 및 중국 정책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한 문제는 지적할 수 있다. 중국 대륙의 공산화가 북한이나 좌익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

89) 도진순, 「1950년 1월 애치슨의 프레스클럽 연설과 하나의 전쟁 논리」,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19(2002).

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더 규정적인 변수는 소련이었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중국의 개입도 스탈린의 소련을 제외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두 정권에 대한 김구의 인식은 서로 군사적 일전을 준비하던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는 민족주의자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 사이에 내전은 기본적으로 일어나서도 안되며,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1949년 달이 갈수록 남북 사이에 38선 충돌이 심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는 전쟁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는, 설령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38선 접경지역의 '작은 전쟁'이거나 남한 내부의 게릴라전 같은 분쟁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후 증명된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38선 충돌이나 게릴라의 유격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전격전으로 전개되었으며, 전선은 비록 한반도에 국한되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외세가 전면 개입하는 국제전으로 비화되었다.

김구의 평화통일론의 내면과 외연을 살펴보면 미소 냉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분단 초기의 현실과 어긋나는 요소들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의 분단 말기인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김구의 평화통일론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평화통일론이 분단 반세기의 긴 잠복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다시 부상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위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외적 현실에 토대를 두는 평화통일론으로 발전시킬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 『국제신문』, 『독립신문』, 『동아일보』, 『民聲』, 『三千里』
『새한민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제2차 남북지도자협의회 속기록」(미출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해방과 건군』, 서울: 국방부, 1968.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3.
김구,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서울: 돌베개, 1997..

김한길, 『현대조선역사』. 평양: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83.

도진순, 「白凡 金九 弑害 事件과 관련된 安斗熙 證言에 대한 分析」, 『성곡논총』 27집 4권, 1996.

_____,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이승만·김구시대의 정치사』.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97.

_____, 「백범 암살관련 美 발굴문서 완전분석: 핵심은 김구 쿠데타 기도설, 염동진 배후설은 근거 없다」. 『신동아』 10월호, 2001.

_____, 「1950년 1월 애치슨의 프레스클럽 연설과 하나의 전쟁 논리」,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19, 200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서울: 나남, 1996.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8·9·11권. 서울: 대한매일신보사, 1999.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송남헌, 『해방3년사』 II. 서울: 까치, 1985.

안두희, 『弑逆의 苦悶』. 서울: 학예사, 1955.

엄항섭 편, 『김구주석 최근 언론집』. 서울: 삼일사, 1948.

정병준, 「1949~50년 38선 충동과 북한의 한국전쟁계획」.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50주년 학술심포지엄, 『한국전쟁의 재인식: 분단을 넘어 통일로』(미출간), 2000.

허종호, 『미제의 극동침략과 조선전쟁』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1947), Vol. VI, 3~1954),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G-2 Weekly Summary" Suitland, M.D.: Federal Records Center Annex(Record Group 319); 영인본 『駐韓 美軍 週刊 情報 要約』, 한림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Fitch, Geraldine, "The Korean Leader Nobody Knows."

Fitch, Geraldine, "Letter: Geraldine Fitch to the Managing Editor of The New Leader, M. Oak."

Haden, Allan, "Leon Prou's Impression of Korean Conditions(1948. 10. 26)."

Muccio,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Secretary of State," no. 327(1949. 6. 6); Enclosure 1: Kimkoo's Statement to UNCOK on May 31, Enclosure 2: Kimkoo's Statement to the Press on June 1, <NARA, RG 59, 501. BB Korea>(이상 영문자료는 『백범김구전집』 9권에 수록되어 있음)

◉ 투고일 : 2004. 11. 1 ◉ 심사완료일 : 2004. 11. 25.
◉ 주제어(keyword) : 김구(Kim Koo), 남북협상(North-South Parley), 평화통일론(Reunification Theory),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 종속과 자주(Dependence and Independence), 민족주의(Nationalism), 민주주의(Democracy).